

어본존(御本尊)

니치렌 대성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어서 구절을 말씀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이다.”(어서전집 1124 쪽)

본존(本尊)이란 ‘근본으로서 존경한다’라는 뜻으로 신앙의 근본대상을 말한다. ‘어(御)’는 상대를 높이는 뜻이다. 남묘호렌게교가 우주 근원의 법이며, 어본존은 그것의 형상적인 표현이다. 어본존에 초점을 맞추고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함으로써, 우주의 힘을 우리속에서 활성화 시킨다.

모든 종교는 근원의 존경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주로 절대적 존재나 신이다. 여러 불교의 종파들도 전통적으로 부처와 부처의 설법을 존경해 왔다. 하지만 부처와 설법의 개념은 각 종파마다 달리한다.

예를 들어 석가부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법멸 후에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여러 종파에서는 부처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는 석가불상이나 이미지에 기원하도록 권장했다.

니치렌은 부처와 법을 자신과 떨어진 다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추법이니라”(어서전집 383 쪽)

인생의 명경(明鏡)

법화경에 근본을 두었던 중국의 천태대사는 성불을 위한 수행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관념관법(觀念觀法)’이라는 명상과 같은 수행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불성을 인지하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 수행은 뛰어난 능력과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힘든 것으로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이 성불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생명 속에 내재한 성불을 직접적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남묘호렌게교의 어본존을 수지하고 제 목을 부르는 수행을 설립하였다. 성불이란 우리의 정신적, 영혼적, 물리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며 또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는 마음의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태대사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관심으로는 부분적인 성불이 가능할 뿐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우리 생명 속에 내재한 불성을 비춰주는 거울로써 사용하고 그 불성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본존을 도현하셨다. SGI 이케다 회장은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불법의 거울은 우리 인생의 보이지 않는 또한 잡을 수도 없는 면을 비춥니다. 빛과 음영이라는 법에서 비롯된 거울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즉 우주와 생명의 법 그 자체에 기반을 둔 어본존은 부처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의 진가를 비출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성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나의 미국의 벗 94 쪽)

거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화장을 하고 수염을 정돈하고 머리를 손질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본존께 창제할 때에도 불단속의 어본존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어본존이 가진 묘법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불의 지혜를 열고 서원을 세워 만인구제를 실현하고자 창제를 한다.

니치렌은 “이 어본존을 결코 타처에서 구하지 말지이다. 다만 우리들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흥중의 육단에 계시느니라”(어서전집 1244 쪽)라고 어본존의 힘을 강조하셨다.

니치렌의 승리하는 생명 상태의 표현

어린 시절부터, 니치렌은 이 세상에서 비참을 없애고 민중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한 결의를 세웠다. 이 서원을 가슴에 품고 철저히 불경을 공부하였고 석가부처의 가르침의 진수로써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하는 수행을 설립해 주셨다. 니치렌 대성인은 불법 유포의 과정에서 참수의 위협을 비롯하여 수많은 험난한 박해를 극복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은 1271년 다쓰노구치 해변에서의 참수의 박해를 극복한 후, 어본존을 도현하기 시작하셨고 신심 강한 제자들에게 수여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대성인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여 사도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한 법문이 있노라.”(어서전집 1489 쪽)라고 하셨다.

니치렌은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세속적인 박해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일어났고, 미래의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명 경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의 승리의 생명 경애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여 남기고자 결의한다.

그는 무사인 제자 시조 강고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니치렌이 수호의 어본존을 쓰는데 있어서도 사자왕(師子王)에 못지 않다. 경에 가로되 사자분신지력이란 것이니라. 또 이 만다라를 정성껏 믿도록 하시라. 남묘호렌계교는 사자후(師子吼)와 같다.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손가.”(어서전집 1124 쪽)

보탑

법화경의 11품인 “용출품”에서는 거대한 보탑이 대지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떠오른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보탑은 중생의 잠재력의 거대함의 은유로써 모든 중생의 불성의 위대함을 표현하셨다. 그 다음 허공의 의식을 설명한다. 이것은 거대한 민중, 부처, 보살 모든 사방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부처는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이 모든 대중을 공중으로 보탑 앞까지 끌어올리고 설법을 시작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문자의 형태로 허공의 의식의 근본 요소로써 어본존을 도현한다. 보탑품을 나타내는 남묘호렌계교는 어본존의 중앙에 적혀있다. 즉 부처의 총체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형식인 그림이나 조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의 형태로 어본존을 도현하였고 니치렌 대성인 자신의 생명으로 체득한 묘법과 일치되는 상태를 어본존에 도현하셨다. 이케다 회장께서는 “그런 석상이나 이미지는 우주의 근본법 즉 모든 원인과(수행) 결과(덕)를 포함하는 남묘호렌계교를 충분히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어서의 세계 2 권 181 쪽)라고 하셨다.

이케다 회장은 또한 “근행하고 창제하는 매일의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재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허공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탑을 우리 속에서 빛나게 할 수 있고 그 보탑은 우리 일상의 활동과 생활속에서 빛납니다. 그것은 어본존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생명의 위대한 우주가 우리에게로 열리고 현실은 그 자체로 가치 창조가 됩니다.”(어서의 세계 2 권 176 쪽)라고 하셨다.

신심(信心)속에 어본존(御本尊)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불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찬성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쉽지 않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도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자신의 불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지 어본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신심과 수행이 바로 강력한 불성을 이끌어 내는 근본 요소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信心)의 이자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것이니라. ...결코 남묘호렌계교라고만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신심의 후박(厚薄)에 달려 있으며, 불법의 근본은 신(信)으로써 근원으로 하느니라.”(어서전집 1244 쪽)

포교의 깃발

니치렌 대성인은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어서전집 1243 쪽)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이케다 다이사쿠 SGI 초대 삼대 회장의 지휘아래 우리는 전 인류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불법의 가르침의 “포교의 깃발”로서 니치렌 대성인께서 원하신 그대로 어본존을 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본존을 향해서 남묘호렌계교를 창제하고 삼대 회장의 정신으로 묘법을 유포하는 SGI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눈부신 성장, 공덕 승리를 인생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